

클래식 명곡 산책 - - 바이올린

피아노와 함께 대표적인 서양 클래식 음악 악기, 바로 바이올린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바이올린은 16세기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바이올린 제작으로 유명한 크레모나를 비롯하여, 베네치아, 브레샤 등에서 제작되었죠.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아마티, 스트라디바리, 파르니에리 등은 이 중 크레모나에서 활동하던 집안들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은 소리가 크고 명료하여 이후 유럽 전역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덕분에 이탈리아의 음악가들도 유럽 전역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었고, 유럽 전역의 음악 지망생들이 이탈리아로 유학을 왔죠. 즉, 바이올린은 오페라와 함께 이탈리아가 음악의 중심지가 되게 한 주역이었습니다.

◆ 토마소 안토니오 비탈리 Thomaso Antonio Vitali (1663~1745)

샤콘느 사단조 Chaconne in g minor



그림 1. 토마소 안토니오 비탈리 / 출처 : last.fm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출생한 비탈리는 에스테 궁정 관현악단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하였으며, 여러 제자를 두는 등 인정받는 음악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대중에게는 무명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꼽히는 야샤 하이페츠(Jascha Heifetz, 1901~1987) 덕분에 오늘날 그의 이름을 모르는 애호가도 없을 정도가 되었죠. 그가 오르간 반주로 녹음한 비탈리의 <샤콘느> 음반이 큰 히트를 쳤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이 곡은 모든 바이올리니스트들의 레퍼토리로 등극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음반이 '지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이라는 타이틀로 홍보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군요.

'샤콘느'란 본래 에스파냐의 3박자 춤곡이지만, 바로크 시대에는 반복되는 화음 진행이나 베이스 성부를 기초로 진행되는 일종의 변주곡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비탈리의 <샤콘느>도 먼저 제시된 하행하는 베이스 라인을 반복하며, 이 위에 선율의 변주가 진행합니다.



❖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Johann Sebastian Bach(1685~1750)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3번 마장조 Partita No. 3
for violin solo, BWV1006 (1720)

바흐가 바로크 음악에서 반주를 맡는 '통주저음'(basso continuo) 파트 없이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를 완성한 것은 괴테에서 활동하던 1720년이었습니다. 이 곡은 당시의 바이올린 기법을 총정리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필 원고에 적혀있는 자세한 지시들은 바흐가 바이올린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음으로 보여주며, 또한 이 곡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특히 한 활에 두 음 이상을 동시에 내는 중음기법은 오늘날에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멜로디와 반주를 한 악기로 구현한 것이었죠.

이 곡은 프랑스의 춤 모음곡처럼 전주곡으로 시작하여 여러 춤곡들의 모음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첫 곡인 '전주곡'은 바흐의 다른 전주곡과 같이 아르페지오로 진행합니다. 바흐는 휘몰아치듯 빠른 속도로 연주해야 하며 구조적인 특징을 잘 살려야 한다고 악보에 직접 써놓았죠. '루르'는 3박자 계열의 느린 프랑스 춤곡이며, '가보트'는 4/4 박자의 프랑스 민속춤입니다. '메뉴엣'은 3/4 박자의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춤곡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있습니다. 두 부분이 차례로 연주된 후, 첫 부분이 다시 연주되면서 마무리됩니다. 부레는 에스파냐에 기원을 둔 4/4박자의 프랑스 춤곡이며, 마지막 '지그'는 영국에서 유래한 3/8 박자 춤곡으로서 가장 빠르고 활기가 넘칩니다.



그림 2. 루트비히 판 베토벤 / 출처 : biograph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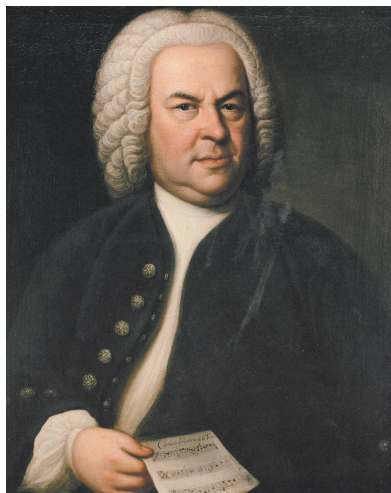


그림 3.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 출처 : nybooks.com

❖ 루트비히 판 베토벤 Ludwig van Beethoven(1770~1827)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마장조 '봄' Violin Sonata No. 5,
Op. 24 'Spring' (1801)

1800년 즈음 베토벤은 귓병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었지만, 반면에 음악적 영감이 총만하여 많은 작품을 동시에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1801년에는 "또 다른 작품을 이미 시작했지만 한 작품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종 서너 작품을 동시에 만들어 내기도 한다."라고 쓰기도 했죠. 실제로 베토벤은 1801년에 바이올린 소나타 4번과 5번을 거의 동시에 마무리했습니다. 4번은 어둡고 반항적이라면,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은 밝고 부드러운 여유가 있고 따뜻합니다. 그래서인지 이후에 어느 때부터인가 봄을 맞이하는 밝은 기분으로서 받아들여지면서 1860년대에 이미 '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죠. 물론 이것은 베토벤의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베토벤은 이 곡을 "완벽한 작품"이라고 말했으며, 당시 평론가들도 이 곡을 베토벤 최고의 작품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을 작품들을 썼던 이 작곡가의 재치 있고 열정적이며 당돌한 정신은 이제 그의 마음에서 사라졌고 모든 무절제한 표현을 제거했다. ... 이전의 몇 작품들처럼 연주하기 어렵지 않고, 더 많은 청중들에게 소개될 수 있을 것이다."

<봄 소나타>는 네 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바이올린 소나타와 다르며, 빠른 1악장에서 곡의 시작과 함께 바이올린이 주제를 연주하는 것도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이 악장은 노래하는 듯한 사랑스러운 멜로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느린 2악장은 서정적인 주제가 피아노에 의해 먼저 제시된 후 바이올린이 이어받습니다. 짧은 간주가 나타난 후, 두 악기는 사랑의 속삭임과 같은 대화를 이어갑니다. 3악장은 1분 남짓의 매우 짧은 스케르초로, 베토벤의 음악적 유머가 한껏 발휘되어있습니다. 두 악기의 교차된 리듬으로 선율을 연주하며, 중간 트리오 부분은 작은 언덕을 뛰어넘는 듯 급히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마지막 4악장은 론도로, 다양한 표정들을 가진 선율들이 등장합니다. 리듬을 다양하게 변형시키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거짓 재현부가 나타나기도 하며, 1악장 주제가 카메오처럼 등장하는 등 복잡한 형식 속에 베토벤의 위트가 배어있습니다.



❖ 니콜로 파가니니 Niccolò Paganini (1782~1840)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6번 마단조 Sonata for violin and guitar, Op. 3-6

파가니니는 매우 화려하고 수준 높은 기교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던, 인류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다양한 연주기법을 고안하여 다른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연주의 경지에 이르러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불리기도 했죠. 하지만 파가니니가 처음 배운 악기는 바이올린이 아니라 만돌린이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명성을 얻게 된 이후에도 기타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었는데, 기타가 포함된 수많은 실내악곡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는 파가니니의 자화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파가니니의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는 작품번호 2번과 작품번호 3번으로 묶여있는 열두 곡이 있습니다. 작품번호 3-6은 그 중 마지막 곡으로,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그 선율이 사용되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그림 4. 니콜로 파가니니 / 출처 : gutenbergproject.org

❖ 세자르 프랑크 César Franck (1822~1890)

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 Violin Sonata in A major (1886)

벨기에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세자르 프랑크는 최고의 오르가니스트로서 자신의 음악 철학이 담긴 뛰어난 오르간 작품들이나 <교향곡 라장조>와 같은 중요한 작품들이 오늘날에도 연주되며 그의 명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크의 이름을 돋보이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작품, <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가 있습니다. 프랑크의 가장 사랑받는 작품이자, 바이올린 소나타로서 가장 훌륭한 작품 중



그림 5. 세자르 프랑크 / 출처 : badische-zeitung.de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곡은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외젠 이자이(Eugène Ysaÿe, 1858~1931)의 결혼 축하 선물로 작곡되었고, 결혼식 아침에 하객을 관객으로 초연되었죠. 프랑크는 4년 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자이는 초연 이후 40년 동안 이 작품을 연주하며 프랑크를 널리 알렸습니다.

프랑크의 가장 뛰어난 작품이자 스스로도 매우 만족했던 <바이올린 소나타>에는 그의 중요한 음악 어법인 '순환 형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순환 형식이란 한 주제를 각 악장에서 변형된 형태로 재사용하여 곡 전체에 높은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극적인 스토리를 만드는 방식을 말합니다. 본래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 1811~1886)가 사용하던 형식을 받아들여 발전시킨 것이죠. 프랑크는 이 변형된 주제를 '사촌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작품에서도 1악장의 주제가 전 악장에서 다양한 '사촌들'로 변형되어 나타납니다. 뱅상 댕디(Vincent D'Indy, 1851~1931)는 '가장 순수한 순환 주제를 갖는 최초의 소나타'라고 평가하였을 정도로 음악사적 중요도가 높죠. 하지만 이 형식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작품을 구성하는 네 악장은 같은 주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분위기는 매우 다르며 대조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1악장은 여유로운 가운데 신비가 감돈다면, 2악장은 폭풍이 몰아치듯 거칠게 질주합니다. 3악장은 다시 차분하고 명상적인 음조로 우아하고 자유롭게 흐르지만, 4악장은 4분음표로 또박또박 진행되는 리듬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카논 형식으로서 질서 정연합니다. 곡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내재된 정열을 과감하게 표현하며 마무리합니다.



❖ 파블로 데 사라사테 Pablo de Sarasate (1844~1908)
치고이너바이젠 Zigeunerweisen, Op. 20 (1878)



그림 6. 파블로 데 사라사테 / 출처 : montagnanabooks.com

스페인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비르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로 추앙받고 있는 사라사테는 작곡가로서 56곡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곡들은 모두 바이올린 작품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돋보이기 위해 극히 기교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럼에도 탄탄한 구조와 개성이 넘치고 호소력이 강한 멜로디로 높은 완성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치고이너바이젠>은 독보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치고이너바이젠'은 '집시의 노래'라는 뜻으로, 특히 헝가리 집시 음악인 차르다시(csárdás) 리듬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장엄한 관현악과 부드러운 바이올린 독주로 시작한 후, 즉흥적인 요소가 가미된 4/4 박자의 느린 멜로디가 이어집니다. 세 번째 부분은 2/4 박자로 화려하게 치장했으면서도 구슬픈 멜로디가 등장하며, 극히 빠른 속도의 스타카토, 더블스톱, 왼손 피치카토 등 초절적인 기교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림 7. 모리스 라벨 / 출처 : limelightmagazine.com.au

❖ 모리스 라벨 Maurice Ravel (1875~1937)
치간 Tzigane (1924)

<볼레로>의 작곡가 라벨도 집시 스타일의 작품을 썼습니다. 바로 <치간>이죠. '치간'은 '집시'를 뜻하는 프랑스어로, 라벨은 <치간>에 대해 헝가리 광시곡 스타일로서 바이올린 묘기를 위해 쓴 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거칠고 야성적인 멜로디와 고난도의 기교가 결합되어 있죠. 그리고 라벨은 집시 음악의 효과를 얻기 위해 '뤼테알'(luthéal)이 설치된 피아노를 원했습니다. 뫼테알은 피아노에 설치하여 집시의 악기인 침발룸이나 바로크 악기인 하프시코드와 유사한 음향을 만드는 장치죠. 그런데 이 장치는 1919년에 특허를 얻었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아 곧 사라졌기 때문에 기존의 피아노로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뫼테알을 복원하여 연주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치간>은 헝가리 무곡인 '차르다시' 형식으로, 느린 '라슈'(lassú)로 시작하여 빠르고 격정적인 '프리스'(friss)로 이어지는 구조로 진행합니다. 우선 무반주 바이올린이 카덴차 스타일로 라슈 부분을 연주합니다. 이 부분에서 레치타티보 풍의 거칠고 기교적인 제1주제와 부드러운 제2주제가 등장하죠. 바이올린의 트릴과 피아노의 분산화음이 등장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분위기로 고조된 후 프리슈로 넘어갑니다. 라슈에서 사용된 제2주제가 보다 빠르고 리드미컬하게 재등장하며, 이 주제에 의한 여덟 개의 변주곡이 이어집니다. 🎧

